

## 宗教定義의 批判 (一)

哲學博士 金永羲

宗教는 무엇인가? 모든 文化와 人智를 달리한 程度를 날아 그 外的 表現은 달으나마 비록 그 表現의 質的 差異는 잇스나마 何如하든 엇더한 方法으로 든지 表現되는 宗教의 根本的 心體가 무엇인가? 낮자두가 번득여 보지 못한 숲 속에서 소리 업시 나리는 달빛 아래 뿔뿔 붓는 불 엮해서 엉킨 풀넝 가튼 머리 해빛에 탄 얼굴을 가진 黑人의 무리 새벽 녘 고요한 山 속으로 길 길히 눅흔 나무에 썩-하는 소리만 나고 별들이 아직까지 반짝일 쎄 쎄-하고 나는 鐘소리가 먼 골작이까지 흘러갈 쎄 촛불 썩벽이는 法堂으로 모히는 중 들 가엸는 모래밭 우에 썩는 해는 내려지고 멀리 椰子나무의 輪廓이 붉게 물든 하늘에 썩러이 보일 쎄 자리를 가루된 모래에 퍼는 흰 옷입은 亞喇比亞人의 무리들 물 쓸듯이 往來하든 市街가 비답이 날개소리 들리게 조용하여진 아춤 運轉手에게 自動車 門까지 열리어 눅흔 鐘閣달린 聖堂으로 들어가는 그 무리들의 信仰이 무엇인가? 그들이 願하는 것이 무엇이며 엇고저 渴望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그마한 표범의 털 조각을 눈감고 험헤이는 模樣하는 부처님들 漢文字 열아문 쓴 나무의 한 토막을 집과 회로 만든 그 模樣업는 미륵님을 象徵으로 推仰하는 그 內的 生活의 本質이 무엇인가? 큰 썩어진 나무 사납게 생긴 바위 山골작이에 깃히 지은 절 山上峰에 잇는 神堂 거룩하여서 敢히 出入하지 못하는 回教의 聖殿市街 中央에 잇는 主日마다 敎人들이 모혔다 헤여지는 곳에서 엇고저 하는 바가 무엇인가? 金剛石의 價値를 한 琉璃瓶과 同一視하는 黑人이 늦게 썩오르는 달의 輪廓만 보이는 山을 내려치는 瀑布를 보는 쎄의 늦김 히말라야山에 부대과는 허리굽은 그들이 헤엄쳐 가는 안개우에 눅히 솟은 山을 볼 쎄에 가지는 김 큰 世界的 市街의 中心에 노혀잇는 大學의 天文學 觀測臺에서 數 업는 星體를 發見하는 쎄의 그 늦김의 性質이 엇더한가? 다시 새로 始作한 生을 象徵삼아 썩는 소의 피로 或은 맑은 물로 洗禮를 맞고 自己가 渴望하는 滿足을 어드려고 人

命을 祭壇에 올리고 或은 自己의 生命을 最憎할 죽임에 바침은 무엇에서 原動力을 바닷는가? 그 表現의 方法이야 淺□하고 優雅하든 道德的 活力이 있든 形式的 迷信이 接近하든 禮式과 敎理야 何如하든 宗派의 名稱이야 엇더하든 이 모든 外的 現象의 背後에 있는 宗教의 本質이 무엇인가? 선을 빌면서 願하든지 香을 피면서 祝文으로 빌든지 晝夜로 經을 외이면서 願하든지 하로 다섯 番式있는 곳을 가림 업시 祈禱文으로 願하든지 과입을갠과 讚頌歌로 願하든지 이 渴望의 心體가 무엇인가? 긴 歷史를 가지고 일어났다 스러진 文化政治 經濟生活을 通하여 모든 民族과 種族을 原動식혀온 宗教라는 것이 무엇인가?

宗教는 『有限한 人的 心으로 絶對的 心の 性質을 把持함이다.... 有限한 心智로 神聖한 精神을 理解함이라』고 『헤-겔』은 말하였다. 論理的 一致와 組織을 主視하든 『헤-겔』은 宗教의 理智的 要素 畚을 視察하였다. 宗教의 血의 元氣를 情意的 成分을 無視하였다 勿論 理級 宗教에 잇서 反理智的 結論은 宗教에 致命傷을 줄 것이다. 그러나 宗教를 通俗化한 哲學-卽 純正한 思想을 具體的 繪畫的 比喩的으로 認識함에 不過한다고 함은 넘으나 宗教의 根本的 要素와 그 獨在性을 無視함이 아닌가? 『宗教는 精神的 實在들에 對한 信仰이다』-라고 『테일러』는 主張하고 『맥스, 물너』는 宗教를 『無限한 實在를 認識함이라』고 斷言하였다 宗教 亦是 『헤-겔』의 主張과 가티 宗教가 宗教되 成分과 性質을 全部 包含하지 못한다. 宗教는 智的 信仰이나 認識 以外에 情意的 經驗을 가졌음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宗教의 心體는 神에게 絶對로 服從하는 情緒 存在한다』라고 『슈라이어마크』는 主張하였다. 『宗教는 理智的 知識과 아모 關聯이 업다. 知識과 全然 分離되어서 그 性質을 解得할 수 잇다.... 한사람이 엇더한 知的 認識을 가졌는지 그 사람은 能히 勁健할 수 잇다.... 觀念과 主義들은 宗教에 全部 關係 업는 外來物이다. 觀念이니, 主義이니 하는 것이 무슨 意味잇는 것이면 그는 智識에 屬할 바이다. 卞라서 宗教는 道德보다도 물과 기름 가티 달으다 道德은 各自의 能動과 各自의 全人的 降服과 歸願을 사람 以上에 存在한 全體의 表現이다. 道德은 全然 自由認識에 依持된다. 宗教는 反對로 心然의 境에서 動力을 맞는다』라고 主張하였다. 宗教는 有限한 사람이 無限한 神에게 對한 熱烈하고 密接한 直接의 心的 經驗이고 全體에 對하여 依賴하는 感覺과 有限에 든 無限現世에 보이는 永遠을 經驗함일 것이다.